

문화인류학과 졸업현지조사보고서

제주도의 어로문화

- 물질문화를 통해 살펴본 제주도민의 어로활동

학	번	2016010264
이	름	박성호
현지조사 지역 / 기간	제주시 일대 / 2017.09.18(월) ~ 2017.09.21(목) 전남 영암군 삼호면 / 2016.03.29(화) ~ 2016.04.01(금) 경북 영주시 부석면 / 2016.09.27(화) ~ 2016.09.30(금) 일본 홋카이도 / 2017.01.18(수) ~ 2017.01.25(수) 전북 군산시 어은리 / 2017.03.28(화) ~ 2017.03.31(금) 인천 강화군 석모리 / 2018.03.27(화) ~ 2018.03.30(금) 전남 보성군 벌교읍 / 2019.04.02(화) ~ 2019.04.05(금) 경북 문경시 / 2019.09.24(화) ~ 2019.09.27(금)	
보고서 제출일	2020.05.04(월)	



현지조사 활동내역

2016010264, 박성호

<p>현지조사 지역 / 기간</p>	<p>1회차 전남 영암군 삼호면/ 2016.03.29(화)~2016.04.01(금) 2회차 경북 영주시 부석면/ 2016.09.27(화)~2016.09.30(금) 3회차 일본 홋카이도/ 2017.01.18.(수)~2017.01.25(수) 4회차 전북 군산시 어은리/ 2017.03.28(화)~2017.03.31(금) 5회차 제주시 일대/ 2017.09.18(월)~2017.09.21(목) 6회차 인천 강화군 석모리/ 2018.03.27(화)~2018.03.30(금) 7회차 전남 보성군 벌교읍/ 2019.04.02(화)~2019.04.05(금) 8회차 경북 문경시/ 2019.09.24(화)~2019.09.27(금)</p>
<p>회차별 활동내역</p>	<p>1회차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여성의 언어적 소통의 문제에 따른 복지실태 파악 2회차 - 부석사와 소수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3회차 - 일본 홋카이도 아이누 민족의 역사 4회차 -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 쇠락해가는 어은마을 5회차 - 물질문화를 통해 살펴본 제주도민의 어로활동 6회차 - 석모도에서 진행된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른 지역 사회의 변동파악 7회차 - 소설 태백산맥이 가지는 의미를 실제 벌교읍 사람들에 대한 구술사를 통해 파악 8회차 - 지역발전에 의한 문경전통시장의 현재 모습과 변천사</p>

제주도의 어로문화

- 물질문화를 통해 살펴본 제주도민의 어로활동

문화인류학과
2016010264, 박성호

연구 주제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개발되고 발전된 어로기술과 도구를 살펴보고 제주도민의 어로활동을 설명한다.	
현지조사 지역 및 기간	제주시 일대 / 2017.09.18(월) ~ 2017.09.21(목)	
연구 일정	일시 / 장소	세부 일정
	09.18 / 제주시 일대	문화자원관리연구반 전체일정
	09.19 / 박물관 및 어촌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금능리 어촌계 방문 및 인터뷰
	09.20 / 원담, 해녀박물관	제주도 원담 관리자 인터뷰 및 체험, 해녀박물관 전시 관람 및 해설, 해설사 인터뷰
	09.21 / 제주시 일대	문화인류학과 전체일정
핵심 단어	제주도, 제주도민, 물질문화, 어로생활의 역사, 어로문화	
연구 질문	1)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은 무엇인가? 2)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개발되고 발전된 어로도구와 방법은 무엇인가? 3) 제주도민의 어로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용 요약	제주도의 전통어로기술은 지형적 특성으로 구분되며, 해안가로 불리는 갯곳, 해안가를 지나 펼쳐지는 걸바당, 걸바당을 지나 펴바당과의 경계를 구분짓는 걸굼바당과 펴바당에서는 각기 다른 어류와 어로도구, 방법이 존재한다. 이런 특성에 따라 제주도의 어로활동은 한반도 내륙과 달리 독특한 활동형식을 보여준다. 이런 활동형식은 화산섬이라는 제주도의 특징으로 인해 농업의 비중보다 어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났으며, 제주도민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고유의 어로문화를 형성하였다.	

현지조사 내용 및 연구 결과

1. 조사주제 및 목적

제주도는 한반도 내륙과 달리 화산섬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으로 인해 제주도는 고유의 바다를 형성하고 있는데, 용암이 바다 속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 바다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 종류는 '갯갯'¹)와 수심에 따라 '걸바당'²), '걸굼바당'³), '펄바당'⁴)으로 구분된다.

제주도민은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 맞는 어로기술과 도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왔다. 이에 따라 본 조사단은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형성된 제주도민의 어로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쿠로시오 원류⁵)로 인해 제주도의 바다에 살고 있는 어류를 파악한다. 제주도의 바다별, 어류별로 어떤 어로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한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어로활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조사내용

제주도의 어로활동에 관한 역사적 배경은 네 가지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다. 어업을 주 생업으로 삼았던 신석기시대, 어업을 바탕으로 국가의 지위를 얻어 한반도 내륙과 더불어 일본, 중국과 교역을 하던 해상왕국의 탐라시대, 본격적으로 한반도 내륙에 귀속되기 시작한 고려시대, 출륙금지령으로 대략 4세기 동안 고통을 받았던 조선시대이다.

이렇게 네 가지 시대는 섬이라는 태생적인 특성으로 어업이 중요했던 제주도에 어로기술의 진보와 퇴보라는 많은 변화를 주었다. 신석기시대에는 어업이 시작되던 시기로 다양한 어로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 어로기술은 탐라시대에 이르러 독자적인 테우(제주 전통 뗏목배)와 덕판배를 만드는 기술로 발전하였고 주변국과 교역을 진행하면서 더욱 진보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고려시대에 귀속되면서 퇴보가 시작되었다. 국가로서 지위를 잃고 상납이 시작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출륙금지령까지 시행되어 주변국과의 교역까지 막히게 되었다. 결국 제주도는 물자수급과 주변국과의 교류가 힘들어져 어로기술은 퇴보할 수밖에 없었고 상납을 위해 필요한 어류만 수확하다보니 특정 어로기술만 유지되었다. 그 결과 현재 제주도는 지속적인 퇴보로 인하여 전통어로기술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조사단은 남아있는 전통어로기술에 대하여 제주도의 바다별로 어떤 어류가 있으며, 어떤 어로도구와 방법이 존재하였는지 파악해본다.

1) 갯갯어로

갯갯어로는 주로 육지부에 인접한 갯갯에서의 해산물 채취를 하는 것이다. 갯갯은 밀물과 썰물이 형성되는 조간대⁶)연안으로 지형에 따라 빌레왓, 자갈밭, 머흘왓, 펄모살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빌레왓은 갯갯가 암반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자갈밭은 갯갯가 자갈이 많이 깔려있

1) 갯갯은 표준어로 갯가(해안가)라고 불리며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의 해안이다.

2) 수심 20~30m의 암반이나 돌무더기와 모래가 깔려있는 지역.

3) 수심 30~50m로 펄바당과 경계 지역.

4) 수심 100m이상으로 질척한 흙이 바닥에 깔려 있는 깊은 바다.

5)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은 건조한 아열대성 바람을 몰아오며 심한 태풍을 동반하는 해류.

6)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

는 지형을 의미한다. 머흘왓은 크고 작은 돌맹이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곳이며, 펄모살밭은 펄과 모래가 뒤섞여있는 지형을 뜻한다.⁷⁾

갯곳의 한 지형인 빌레왓에서는 주로 원, 개라고 칭해지는 장소에서 원시어로가 행해진다. 자갈밭에서는 주로 제주방언인 갱이(게)라 일컫는 게잡이가 이루어지며, 머흘왓에서는 빌레왓과 마찬가지로 원과 개를 활용하여 장어, 패감시, 멜(멸치)잡이 등이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펄모살밭에서는 주로 조개잡이가 이루어진다.

네 가지 지형에 따라 갯곳어로는 세 가지 어로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빌레왓과 머흘왓에 존재하는 원, 개를 활용한 어로행위와 낙시대를 활용한 어로행위, 썰물 때 행해지던 채패, 채조 등의 어로행위이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던 어로도구는 대부분 보통 한, 두 사람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멜과 같은 작은 물고기를 잡는 족바지(뜰채), 소형그물과 활동성 어류⁸⁾를 잡는 낙시, 소살(작살) 등이 있다. 그리고 해조류와 패류, 갑각류를 잡을 때 사용하는 종게호미, 손대홀대, 호맹이(굴각지), 빗창 등이 있다.⁹⁾

(1) 빌레왓과 머흘왓

가. 원담

원담은 다른 말로 갯담이라고 불리며 제주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원, 개라고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으로 원담은 제주 해안가에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해산물을 잡을 수 있게 쌓아 만든 돌담이다. 원담을 만들 때에는 제주 해안가에서 살짝 만(灣)을 이룬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거나 인공적으로 돌을 쌓아 둘러막는다. 그리고 안쪽 담은 평평하게 직선으로 바깥쪽 담은 비스듬히 경사지게 만들어 밀물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자연히 그 안에 갇히게 만드는 원리를 이루고 있다.



[사진 3] 이호테우 원담

7)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8) 장어, 패감시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어류.

9) 제주대학교박물관 상설전시 해설 도록.

이런 원담은 지형적인 조건에 의하여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높이는 1m, 폭은 2m 내외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둘러쌓은 원담의 규모는 70평에서 4~5천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모양은 크게 직선형과 곡선형으로 나뉜다. 그리고 돌담의 단면은 직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나뉜다. 이런 모양의 차이는 파도의 영향 때문인데, 파도의 영향이 곧바로 미치는 원담은 곡선형이 대부분이고 그 단면의 모양은 직삼각형이다. 반면, 파도의 영향이 덜 미치는 원담은 직선형으로 단면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사진 4] 금능리 원담(직선형, 직사각형)



[사진 5] 이호테우 원담(곡선형, 직삼각형)

예부터 원담에서는 주 어획대상으로 멍을 잡아왔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장어, 패감시, 각재기 등을 잡았으며, 보말, 소라, 오분자기 등의 패류와 돌김, 톳, 감태 등의 해조류를 채집하였다고 전해진다.



[사진 6] 원담에서의 어로행위

㉠ 멍잡이

멍은 수심 0~200m에 서식하는 작은 물고기이다. 주로 여름과 가을에 서식하는 멍은 뭉쳐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원담에서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은 무리를 지어 남아있다. 이런 멍은 족바지를 통해 잡는다. 족바지는 Y자 모양의 소나무 가지에 휘는 성질이 강한 대나무와 참나무를 고정하여 그물을 달아 매어 만든다. 족바지를 사용할 때에는 한 사람이 원



[사진 5] 족바지와 족은 족바지

에서 해녀들이 이용하거나 원담에서 한 명의 어부가 돌아다니면서 잡는다. 소살은 긴 대나무 막대 끝에 꼬챙이를 단 형태이다. 그리고 소살을 사용할 때는 지나가는 활동성 어류의 진행방향에 맞춰 찔러 넣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활동성 어류는 돌 밑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활동성 어류를 잡으려면 돌을 들춰내자마자 소살을 찔러 넣는 방식이 중요했고 이 방법은 높은 숙련도가 필요했다.

담 속을 거닐며, 눈에 보이는 멸치떼를 떠올리듯 잡는다. 그리고 족은 족바지라고 하여 같은 용도의, 작은 크기의 도구도 활용된다.

㉞ 장어잡이

장어는 적도 근처의 심해에서 산란하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분포한다. 이런 장어는 5월에서 7월까지 활동하며, 움직임이 빠르고 바위 속에 숨어있는 습성이 있다. 장어같은 활동성 어류를 잡을 땐 주로 소살을 사용한다. 갯곳



[사진 6] 소살(출처: 제주대학교박물관)

㉟ 행담 및 멜고리

원담에서 잡은 물고기를 담는 도구가 있는데, 행담과 멜고리이다. 행담은 직사각형 모양의 뚜껑이 있는 통이고, 멜고리는 원형 모양의 뚜껑이 없는 통이다. 이런 행담은 잡은 물고기를 담을 뿐만 아니라 낚시¹⁰⁾(이하 바늘이라 한다.), 줄, 봉돌 등의 낚시어구도 같이 넣어 다니는 용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행담과 멜고리는 원담뿐만 아니라 걸바당어로, 걸굼바당어로, 펄바당어로에서도 활용된다.

10)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사진 9] 행담(출처: 제주대학교박물관)



[사진 10] 멜고리

나. 해조류 채취

빌레왓이나 머흘왓에서 해조류를 채취할 때는 해녀들이 활동한다. 바닷속 돌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떼어내기 위해 잠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어부들이 원담이나 부두에 붙어있는 해조류를 채취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빌레왓과 머흘왓에서는 주로 돌김, 미역, 툇이 채집된다.

돌김은 조간대 상부의 암반에 붙어 서식하며, 가을부터 이듬해 초여름까지 생육한다. 미역은 한류¹¹⁾와 난류¹²⁾가 직접 만나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연안에 자생하며 1년생 해조로 보통 봄인 3~5월에 채취한다. 툇은 조간대 하부에서 경사가 완만한 암초지대나 파도가 심하지 않으며 갯벌이 약간 덮인 지역에 서식한다. 그리고 보통 봄인 4~5월 이후에 생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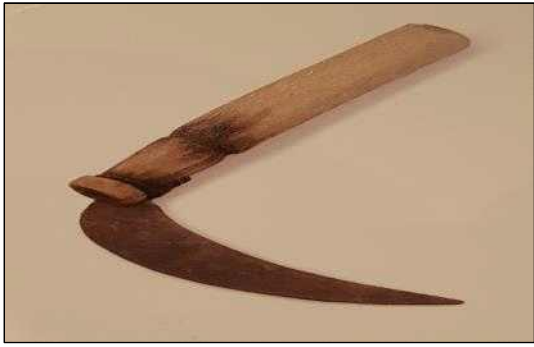
[사진 11] 돌늦조갱이(출처: 제주대학교박물관)

어있는 미역과 툇을 굵어낸다.

이런 돌김과 미역, 툇은 돌늦조갱이, 종게호미 혹은 손대홀대(갈퀴)를 사용하여 채취한다. 돌늦조갱이는 전복껍질로 이루어져있으며, 암반에 붙어있는 돌김을 굵으며 채취하기 위해 아랫부분이 날처럼 다듬어져있다. 종게호미는 낮의 일종으로 나무 막대에 길고 납작한 쇠붙이가 달려있다. 종게호미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25.5cm이며 사용할 때에는 미역이나 툇을 잡고 베어낸다. 손대홀대는 일반적으로 17cm이며 대나무 막대에 여러 개의 못 모양의 쇠붙이를 붙여 만든다. 그리고 손대홀대의 사용방법은 암반에 붙

11) 바다 표면의 흐름 중 차가운 해류.

12) 바다 표면의 흐름 중 따뜻한 해류.



[사진 12] 종게호미(출처: 제주대학교박물관) [사진 13] 손대홀대(출처: 제주대학교박물관)

(2) 자갈밭과 펄모살밭

가. 갯잡이

제주도는 난류성 게류가 많다. 그 종류는 꽃갱이, 듬북갱이, 지름갱이(바위게) 등으로 종류만큼이나 서식환경과 외양적 특성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갯이는 바닥에 구멍을 파 그 속에 살거나, 기어 다니며 서식한다. 이런 갯이를 잡을 때는 보통 두 명 이상이 모여 자갈밭의 잔돌을 원형 모양으로 치워나가면서 원안으로 몰아간다. 그 후 갇힌 갯이들을 한 번에 잡아내며, 이 작업은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이루어진다.

나. 패류

㉠ 조개 및 구쟁이(소라), 전복캐기

조개는 모래나 진흙 등 연안 바다 속에 들어가 사는 것, 암석 기타 물체 표면에 붙어 사는 것, 굳은 바닥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 사는 것, 공생이나 기생하는 것이 있다. 구쟁이는 여름에 산란하며 우리나라의 전 연안에서 볼 수 있으나 특히 남해안에 많다. 그리고 구쟁이는 주로 암초지대, 해조류 특히 갈조류¹³⁾가 많은 곳에 서식한다. 전복은 수심 5~50m되는 섬 지방이나 암초에 서식하며 바닷물이 깨끗해 해조류가 많이 번식하는 곳에 많다. 또한 전복은 난생¹⁴⁾으로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산란하여 수정하며, 1년 동안 2~3cm 정도 자란다.

사시사철 캐 수 있는 조개 및 구쟁이는 해녀들이 호맹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캔다. 이것은 작은 나무막대에 고리 모양의 쇠붙이가 달려있다. 길이는 보통 42cm이며 갯바닥을 긁는 방식으로 조개와 구쟁이를 캔다. 전복을 캐 때는 해녀들이 빗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활동했다. 빗창은 길이 30cm쯤 되는 납작하고 길쭉한 쇠붙이로 머리는 원형이며, 뒤쪽 구멍엔 손잡이 끈이 달려있다. 빗창을 사용할 때에는 해녀들이 그 끈을 잡고 암반 등에 붙어있는 전복을 떼어낸다.

13) 황갈색 혹은 갈색을 띠는 해조의 일종.

14) 동물의 알이 몸 밖으로 나와서 발육하는 것(체외수정).



[사진 14] 호메이(출처: 제주대학교박물관)



[사진 15] 빗창

㉞ 패류를 담는 도구

해녀들이 물속에서 패류를 담을 때 테왁과 망사리라는 도구를 활용한다. 테왁은 부력을 이용하여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나서 숨을 고르러 오는 휴식처를 제공하며 박으로 만든다. 테왁의 크기는 해녀들이 가슴에 얹고 헤엄칠 수 있도록 보통 높이 25cm, 둘레 90cm내외이다. 망사리는 테왁에 붙어있는 그물주머니로서 바다 속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넣어둘 수 있는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며 테왁과 같이 바다표면에 떠있다. 이런 망사리는 입구 쪽 지름이 40~50cm, 길이 70cm내외의 둥근 통 모양이다. 더불어 해녀의 몸에 직접 둘러 잠수할 때 사용하는 족은 망사리도 있다.



[사진 16] 테왁과 망사리



[사진 17] 족은 망사리(출처: 어구(漁具))

2) 걸바당어로

걸바당은 갯곳의 다음 바다로서 지형에 암반이나 돌무더기, 모래가 깔려있다. 더불어 수심이 20~30m로 깊지 않기 때문에 갯곳에서 잡히는 멍, 조개, 구쟁이, 전복 등이 그대로 수확된다. 그러나 해안가인 갯곳에 비해 육지와 떨어져 있으므로 어류를 잡기 위해서는 테우를 타고 나가야 했으며, 조개, 구쟁이, 전복 등을 수확하는 해녀 역시 테우를 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걸바당부터는 배를 활용한 어로가 발달하였으며, 갯곳보다 깊은 수심에 사는 물고기들을 잡는 어로도와 방법이 고안되었다.

걸바당에서는 저림(재방어), 다금바리, 문게(문어), 멍, 자리돔 등이 서식하며 이것을 잡기 위해 낚시도구와 그물을 이용하였다. 낚시도구를 사용하는 어류는 저림, 다금바리, 문게였으며 멍, 자리돔은 그물을 이용하였다.

(1) 낚시어로

가. 테우

테우는 제주도의 뗏목배이며 여러 개의 통나무를 엮어서 만들었다. 테우는 ‘떼배’, ‘터위’, ‘테위’, ‘테’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낚시, 해초채취, 해녀운반, 해녀의 휴식처 등의 역할을 했다. 수심이 얕은 걸바당어로를 위해 주로 2인 이상이 사용하였다. 테우를 이용한 어로활동은 3월~10월이었으며 겨울 동안에는 해체하여 보관해두었다가 이듬해 어로 시기가 다가올 즈음 다시 조립하여 쓰는데 일반적이었다. 테우를 해체, 보관했던 이유는 약 7~8개월 동안 물을 먹은 통나무를 건조시키면 무게가 가벼워져 항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¹⁵⁾



[사진 18] 테우



[사진 19] 상자리

테우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나무들 중 다른 나무들에 비해 부력이 뛰어난 구상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구상나무는 한라산 일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한정된 나무였기 때문에 고갈되면서부터 일본 대마도의 삼나무로 만들었다. 테우는 상자리, 돛대궁기, 노, 자리눈(자리물안경), 국자사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테우를 만들 때는 보통 7개~11개의 통나무를 사용하여 암반에 부딪히지 않게 밑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으며, 일렬로 배치된 통나무를 못의 역할을 하는 장쇠로 고정시켰다. 다음으로 그 위에 상자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상자리는 가시나무로 만든 여섯 개의 작은 통나무를 테우 위에 세워 놓고 그 위에 대나무로 엮어 만든 자리였다. 이것은 노를 젓기 위함이기도 하며, 어로 작업 도중 앉아 쉬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바다풀 등의 무거운 짐을 실어 테우가 가라앉을 위기를 맞았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떠있어 생명줄 구실을 하기도 했다.

테우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돛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리돛같

15) 문화원형백과.

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드리우거나 끌어올리는 도르래가 필요했다. 그래서 돛대를 만들어 놓고 작업할 때만 임시로 세워, 도르래를 높이 달아매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돛대궁기였다. 물을 헤쳐 테우를 항진하게 하는 기구인 노를 터윳뇌(테윳뇌, 돌름뇌)라 한다. 테우의 노는 일반적인 배의 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젓는다. 일반적인 노가 어깨 밑으로 젓는다면, 테우의 노는 어깨 위로 손을 치켜들어 젓는 것이다.



[사진 20] 자리눈

720cm길이의 뜰대이다. 에움은 그물을 걸어 끼우는 직경 310cm안팎의 테두리인데, 바닷물에 질긴 소리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자리돔들이 놀라 도망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검은색 칠을 한다. 자리돔을 잡을 때는 일정한 자리돔밭으로 간 뒤, 도착하면 닻을 드리워 배를 세운다. 그 후 배의 앞부분인 이물에서 국자사들을 드리우며 기다린다. 이때 국자사들을 드리운 상태에서 자리눈으로 자리돔들이 그물 위로 몰려들고 있는지 살피다, 몰려들었다고 확인되면 그때 국자사들을 이물에 받쳐 눕혀 들어올리며 잡는다. 이 자리돔잡이는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명은 자리눈으로 자리돔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자리돔을 국자사들로 떠올리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루어졌다.

테우에서 자리돔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 자리눈이라는 것인데 자리돔이 모여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 바다 속을 살펴보는 물안경이다. 자리눈은 사다리꼴 모양의 나무통에 양 입구를 뚫어 그 안에 유리를 넣어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대략 40cm이다.

다음으로 자리돔을 잡는 그물인 국자사들은 배와 일체형으로 되어있다. 생김새가 국자처럼 생겨서 국자사들이라고 불리며, 이것의 구성은 사들대, 에움, 그물로 이루어져있다. 사들대는



[사진 21] 국자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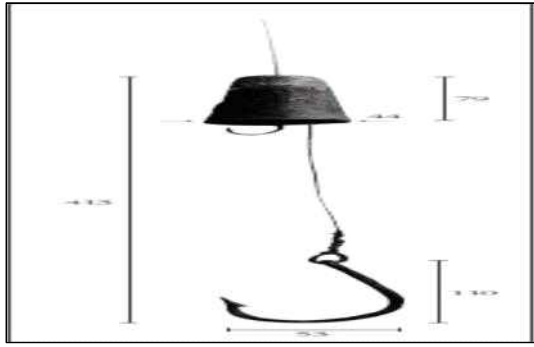
[사진 22] 자리돔잡이 모습(출처: 어구(漁具))

㊤ 저립끝낚기

저립은 수심 10m이내의 민물이나, 바다 등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열대기후¹⁶⁾인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저립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는 저립낚시라는 것으로 본줄¹⁷⁾과 아릿

16) 열대와 온대의 중간지역(위도 20~40°).

17) 낚시대 끝에서 연결되는 아릿줄 전까지의 낚시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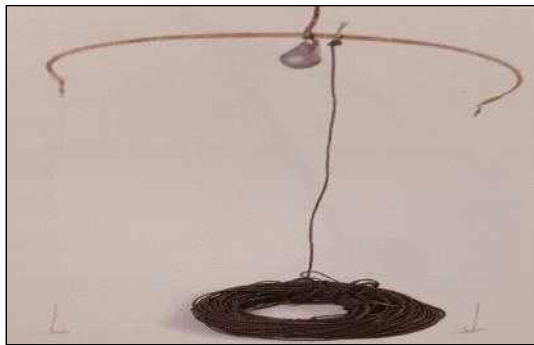
줄¹⁸⁾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형태는 아랫줄에 바늘을 매달고 바늘 위에 자그마한 바늘을 다시 달아맸다. 덧 달아맨 바늘은 본 바늘에 펜미끼를 위에서 다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저립을 잡을 때는 저립이 많이 보이는 저립밭에서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드리우며 잡는다. 이는 보통 8월에서 10월 사이에 행해진다.

㉞ 다금바리낚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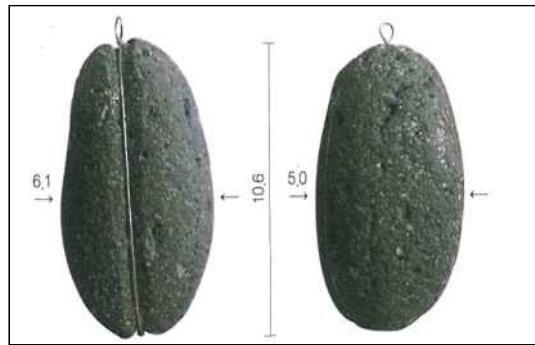
[사진 23] 저립낚시(출처: 어구(漁具))

다금바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지역에 볼 수 있으며, 패각이나, 모래가 섞인 암초지대의 바위 근처에 서식한다. 그리고 다금바리는 거의 이동을 하지 않는 정착성 물고기로 5월~8월에 산란하며 사시사철 잡힌다.

이런 다금바리를 낚을 때 사용하는 어구는 갈치술이다. 갈치술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손줄낚시 도구이며, 이 도구는 차세¹⁹⁾와 낚싯줄, 횡룡²⁰⁾과 봉약줄²¹⁾, 봉돌²²⁾과 바늘로 구성되어 있다. 다금바리를 낚을 때는 다금바리밭에서 갈치술을 드리우고 낚는다.



[사진 24] 갈치술(출처: 제주대학교박물관)



[사진 25] 봉돌(출처: 어구(漁具))

㉟ 뭉게낚기

뭉게는 따뜻한 난류에서 서식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 있고 지능이 높다. 그리고 뭉게의 종류 중 작은 것은 조간대에서, 큰 것은 수심 100m 이상인 곳에서 서식한다. 뭉게를 잡을 때는 뭉게삼봉이라는 낚시 도구와 뭉게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뭉게삼봉은 납덩이와 대나무를 부착시켜 철사로 감아 고정시키고 대나무 끝에 바늘 세 개를 실로 단단하게 감아 묶은 형태이다. 미끼를 감아 묶기 위한 가느다란 철사도 있으며,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아랫줄을 고정시켰다. 뭉게거넷은 한 발(대략 150cm) 정도 되는 대나무 가장자리에 다섯 개의 바늘을 엮어매어 만들었으며, 생김새는 소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봄과 가을에 행해지는 뭉게낚기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뭉게삼봉을 사용할 때

18) 본줄 다음으로 낚시와 연결되는 줄.

19) 낚싯줄을 감을 때 쓰는 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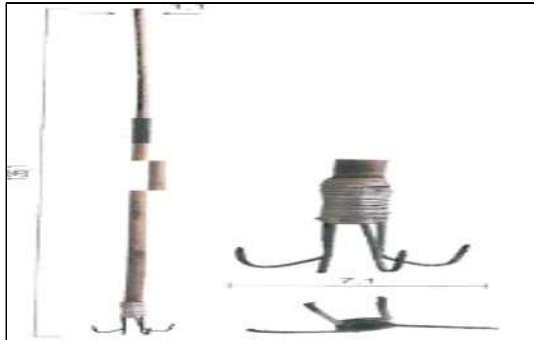
20) 낚싯줄과 봉약줄을 이어주는 도르래(현대 낚싯대의 릴).

21) 횡룡부터 바늘 전까지 연결되는 낚싯줄.

22) 낚싯줄에 매달려 바늘을 원하는 장소나 수심으로 보내주는 도구.



[사진 26] 뭉게삼봉(출처: 어구(漁具))



[사진 27] 뭉게거낚(출처: 어구(漁具))

이다. 뭉게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활동성 어류이기 때문에, 테우를 항진시키면서 낚시를 드리웠다가 입질이 오게 되면 한 번에 건져낸다. 두 번째는 뭉게거낚을 사용할 때이다. 이때는 테우를 타고나가지 않고,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바다까지 나아가 바닷속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흘쳐올리는 방식으로 잡는다.

㉔ 뿔잡이

갯곳의 원담에서 주로 행해지는 뿔잡이는 걸바당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때 사용되는 어로도구는 후릿그물이다. 후릿그물은 총길이가 대략 144발정도, 폭이 5m정도로 거대하다. 그물 위쪽에는 부표인 ‘버국’이 30cm간격으로 일정하게 매달려 있고, 그물 아래쪽에는 불돌²³⁾이라는 그물돌이 매달려 있다.

이런 후릿그물로 뿔을 잡을 때는 대략 10명 이상의 어로 공동체가 필요하다. 거대한 그물인 만큼 최소 다섯 척의 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뿔이 많이 나오는 어장으로 두 척의 배가 그물을 운반한다. 두 척의 배가 어장에 도착하면 나머지 세 척의 배가 어장을 둘러싸고 함께 그물을 드리운다. 그렇게 후릿그물을 드리우고 기다리다 밀물 따라 그물 안으로 몰려든 뿔이 썰물때 빠져나가기 전에 맞춰, 가장 양 끝의 배가 그물을 당겨올린다. 당겨올리는 것과 동시에 이외의 배들은 그물 한가운데를 잡고 뿔을 포위한 상태로 만든다. 그 후 한 척의 배가 제일 앞에서 항진하며 미리 설정해둔 해안가 근처의 목표지점으로 뿔이 들어있는 그물을 운반한다. 그렇게 목표지점에 도착하면 해안가에 그물을 고정시켜 뿔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하나씩 거둬들인다.

23) 그물돌로서 봉돌과 같은 용도이다.



[사진 28] 뽕잡이모습(출처: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 자리돔잡이

자리돔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제주도의 동남부에서 볼 수 있는데, 주로 수심 2~15m 지점에 형성되어 있는 산호 주변이나 암초지대에 넓게 분포한다. 이런 자리돔은 보통 5월~8월에 산란기를 맞으며, 자리돔잡이는 그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리돔을 잡을 때는 자리눈과 국자사들을 활용하였다.

3) 걸꿍바당과 펄바당어로

걸꿍바당과 펄바당은 걸바당에 비해 암반이나 돌무더기가 줄어들고 수심이 더 깊어진다. 최소 30m 이상이며, 펄바당에서는 최소 100m를 넘는다. 바닷속 지형은 모래와 질척한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제주도는 출륙금지령으로 인해 대략 4세기동안 한반도 내륙, 일본, 중국과의 무역과 이동이 금지되었었다. 그로 인해 먼 바다로 나가는 어로기술은 퇴보할 수밖에 없었고 먼 바다인 걸꿍바당과 펄바당에서의 어로활동은 제한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먼 바다로 항해할 때 이용되던 덕판배는 현재 자취를 감추게 되어 남아있는 기록은 거의 없으며, 걸꿍바당과 펄바당에서 덕판배를 사용한 어로활동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걸꿍바당과 펄바당에서의 대표적인 어로활동으로 갈치낚시, 옥돔손줄낚시, 조기손줄낚시, 오징어낚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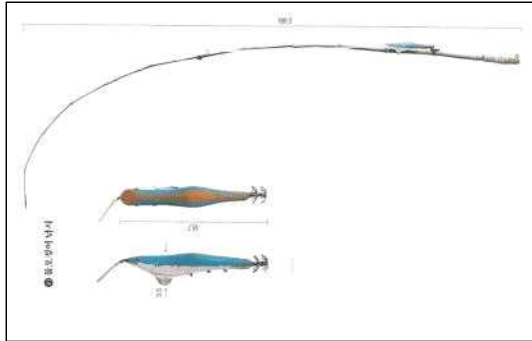
(1) 갈치, 옥돔, 조기낚시

갈치는 열대, 온대 해역 등에 분포하며 50~300m 정도의 깊은 바다 속에서 살지만,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해엄을 칠 때에는 W자 모양으로 꼬리를 움직이며 이동하며 무리를 짓기도 한다. 옥돔은 바닥이 모래와 갯벌로 이루어진 수심 30~200m 정도의 따뜻한 수역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며, 갯벌이나 모래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서 생활한다. 조기는 수심이 40~100m 정도의 모래진흙 바닥에서 서식한다. 개구리가 떼를 지어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물 위로 튀어오르는 습성 때문에 인근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시끄럽다고 느끼기도 한다.

갈치와 옥돔, 조기를 낚을 때는 다금바리와 같은 손줄낚시도구인 갈치술을 사용한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갈치는 8월~10월, 옥돔은 9월~이듬해 5월, 조기는 10월에 어로활동이 행해진다.

(2) 오징어낚기



오징어는 모두 바다에 살며 연안에서부터 심해까지 분포한다. 오징어를 잡을 때는 오징어낚시라는 도구를 사용한다. 이것은 낚싯대와 물고기 모양의 바늘로 이루어져 있다. 낚싯대 허리에는 철사 고리가 붙어있고 여기에 낚싯줄을 감아둔다. 바늘은 오동나무를 잘 다듬어 물고기처럼 만들고, 배에는 납, 꼬리에는 오징어바늘을 고정시킨다.

[사진 29] 오징어낚시(출처: 어구(漁具))

오징어를 잡을 때는 낚는다고 하지 않고 붙인다고 한다. 오징어는 미끼에 한 번 달라붙으면

물 위로 올라올 때까지 떨어져 도망갈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오징어는 낮에는 바다 속에서 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위로 올라와 활동하는 물고기이며, 보통 5월~8월 밤에 덕판배를 타고나가 붙인다. 이때 여럿이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 여러 낚싯대를 준비해가 배 한쪽에 드리워 놓고 수시로 번갈아 가며 오징어가 붙었는지를 확인하며 올리게 된다. 더불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거나 하면 오징어는 미끼에 알아서 달라붙기 때문에 묵직한 감이 손에 전해지면 건지면 된다.

3. 조사결과

현재 문헌기록으로 남아있는 제주도의 전통어로기술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구분된다.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의 종류가 다르고 그 어류에 따라 어로도구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해안가라고 불리는 갯굿이다. 이곳에서는 제주도의 바닷가 지형이 암반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돌을 이용한 어장인 원담이라는 전통원시어로가 존재하며, 멍, 장어 등의 활동성 어류와 강이같은 갑각류가 잡힌다. 그리고 돌김, 미역같은 해조류와 조개, 구렁이, 전복 등의 패류가 수확된다. 두 번째 해안가를 지나 펼쳐지는 걸바당에서는 암초에 부딪치지 않기 위한 테우라는 배를 활용하여 저립, 다금바리, 뽕게, 멍, 자리돔이 낚시도구와 그물을 이용하여 잡힌다. 세 번째 걸바당을 지나 펄바당과의 경계를 구분짓는 걸굼바당과 펄바당에서는 갈치, 옥돔, 조기, 오징어 등을 덕판배를 타고 나가 낚시도구로 잡는다.

예전부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어로활동은 자급자족을 위한 대표적인 생계수단이였다. 더불어 제주도에서는 물이 고이지 않는 현무암의 특성으로 인해 밭을 가꾸기 어려워, 어로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로활동이 중요한 제주도에서는 한반도 내륙과 달리 독특한 어로활동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 형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쿠로시오 원류와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어류의 종류를 파악하면서 어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였다. 이는 바닷속 지형을 구분하여 어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신석기시대에 개발되고 발전된 제주도의 어로활동은 고려시대부터 퇴보하게 되

었다. 거기다 조선시대의 출륙금지령으로 이루어지던 퇴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과거 제주도민의 어로활동은 전통원시어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원시어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 용암이 바다 속으로 흘러들어가 지형을 형성시켰을 때 제주도민은 지형을 전부 파악하여 네 가지 바다로 구분했다는 점, 쿠로시오 원류로 인해 어떤 난류성 물고기가 서식하는지 파악했다는 점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발생하는 밀물과 썰물에 맞춰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원담을 만든 점, 제주도의 바닷속 지형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구역에서 원활한 어로활동을 위해 뗏목배인 테우를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형식은 제주도민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고유의 어로문화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참고자료

저서

- 고광민, 2002, 『어구(漁具)』, 제주대학교박물관.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서울 : 대원사.
한천복, 2009, 『구좌읍의 갯담과 불턱』,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회.
허향진, 2015, 『제주의 바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사이트

- 두산백과: www.doopedia.co.kr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위키백과: ko.wikipedia.org
제주시청: www.jejusi.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www.grandculture.net

인포먼트

- 김○○(남, 40대 추정) : 제주시,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고○○(남, 40대 추정) : 제주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여, 40대 추정) :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남, 87) : 제주시 금능리, 어부
현○○(남, 30대 추정) : 서귀포시, 제주4·3평화재단 문화관광해설사

개인적 의견

이 보고서는 2017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문화인류학과 2017 제주도 추계현지조사에서 문화자원관리연구반의 연구주제 중 하나인 제주도의 어로문화에 대한 연구 및 연구내용, 결과이다. 이 연구는 필자가 직접 문화자원관리연구반에서 팀장을 하며 8명의 팀원과 함께 기획하고 연구하고 해석해낸 결과물이다. 3박 4일간 진행된 이 현지조사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과 그 특성에 따라 나타나게 된 어로문화를 살펴보고 왜 그런 어로문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지질학적 관점, 문화적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어로문화가 과거와 달리 어떻게 달라졌는지 역사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제주도민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형성되고 계승된 기존의 고유한 어로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인류학과는 매년 매학기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현지조사는 연구반과 학생회라는 조직을 통해 기획되고 준비된다. 모든 문화인류학과 재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현지조사는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해나간다. 또한, 인류학적 관점과 방법론을 이용해 각 지역에 맞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실제 연구를 진행해나간다는 점에서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학습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교육방법이 없다. 이 보고서는 문화인류학과 현지조사의 장점과 매력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결과물이다. 앞으로 지속될 현지조사에서 이 보고서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록을 남긴다. 대학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필자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어 계속해나갈 공부에 기반이 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현지조사에서 다양하고 발전된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